

“학교 교육을 ‘돈 문제’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계의 변화, 학생 수 감소 등 학교 안팎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교육 체제, 교사의 양성과 수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을 ‘돈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단연코 반대한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일부에서 교사의 수를 줄이고,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❶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개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생님과 학생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교육에는 ‘생명하복’, ‘일사불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학교가 학교 상황에 맞도록 방역과 교육에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학교 현장의 사이에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학교 현장의 상황에 근거해 중앙 정부와 국가교육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기구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맞도록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❷ 8대 회장 취임 후 지난 3개월간의 성과

지금 교육계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교육 모두를 실현해내는 것이다. 원격수업자료를 만들고, 대면수업도 준비해야 하는 선생님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지원해야 하는 학부모, 그리고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번갈아 참여해야 하는 학생 모두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1학기에 이어 지난 3개월간 교육부에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현장에 맞는 방역과 수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이밖에 직업

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1학년 대입 관리 지원 방안

우선 고3 학생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3 학생의 매일 등교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리·감독 인원 및 방역 인력을 증원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방역 대책 본부와 합동으로 수험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❹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의 과제

교육재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 대한민국의 학교는 여전히 가난하다. 이제 겨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OECD 상위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제 등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 미래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교육 혁신 정책을 마련하고 제언할 계획이다. ▼